민주 내홍 결국 정면충돌…'전대 룰' 표류하나

전준위-혁신위, 연석회의 이견 조율 난항

당헌·당규 개정 계획도 차질 빚어질 듯

민주통합당 차기 전당대회의 '전대 룰'을 놓고 당내 전대 준비위와 정치혁신위가 14일 정면충돌했다.

전대준비위와 정치혁신위는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연석회의를 열어 전대 룰에 대한 입장차 조율을 시도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치혁신위는 이날 회의에서 "새 지도부가 공천권을 갖는 순간 차기 전대는 계파간 경쟁으로 변질될 수 밖에 없고 전대 후에도 혁신작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며 임시 전당대회를 개최하되, 새로운 지도부 임기를 한명숙 전 대표의 잔여임기인 내년 1월까지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맞서 전대 준비위는 정치혁신위 안을 수용할 경우 당권 도전자가 줄어들면서 전대의 역동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 새 지도부의 권한이 약화되면서 오히려 혁신의 동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기존 입장(3월말~4월초 임시전대, 새 지도부 임기는 내년 9월까지)을 고수하면서 양측 간에 팽팽한 줄다리기가 전개됐다.

전대 준비위 일각에서는 정치혁신위가 전준위의 고유 영역을 침범하고 있다는 불만 섞인 기류도 감지됐다.

특히 비주류 측에서는 '친노들의 반격이 시작됐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치혁신위에 일부 친노 인사들이 포진한 점 등을 들어 친노 및 주류 그룹이 정치혁신위를 앞세워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려 한다는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전대 준비위 결정에 반발하는 범주류 및 중립지대 일부 의원들은 전날 밤 만찬 회동을 갖고 어차피 당헌 및 당규를 개정할 바에야 정기 전당대회를 개최, 새 지도부 임기를 2년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으며, 조만간 이를 비대위에 전달키로 했다.

이처럼 전대룰을 둘러싼 당내 혼선이 가중되면서 이달 20일까지 관련 당헌·당규 개정 작업을 마치겠다는 당초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공산이 적지 않아 보인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부의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전준위의 결정이 뒤집어질 경우, 심각한 내홍에 직면한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이 같은 내홍 속에 전대 룰의 최대 쟁점 중 하나인 모바일투표 존폐 여부에 대해선 아직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못한 상태이다.

이날 전대준비위와 정치혁신위가 합의점에 이루지 못함에 따라 경우 결국 '공'은 비대위로 넘어갈 전망이다.

전대준비위와 정치혁신위가 각각의 전대 룰을 비대위에 제출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대위 내부에서도 주류 및 비주류 출신 위원간의 의견이 엇갈려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회동에서 양측의 격렬한 충돌은 없었으며 서로 간의 입장을 설명하는 자리였다"며 "하지만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최종 결론은 비대위에서 낼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이용섭 딜레마'

민주 차기 전대 앞두고 당권 도전 움직임에

광주·전남 다선들 "지도부 도전 차질" 고심

민주당의 차기 전당대회를 앞두고 광주·전남지역 다선 국회의원들이 '이용섭 딜레마'에 빠졌다.

현재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에서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해서 선출하는 단일성 집단지도체제 도입을 결정한 상황이다.

그런데 재선의 이용섭(광산을) 의원이 차기 전당대회에서 당권 도전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면서 지도부 경선 출마를 염두에 뒀던 지역 다선 의원들의 전략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당장, 재선 의원이 당권에 도전하는데 3선 이상의 의원들이 사실상 2부 리그인 최고위원 경선에 참여한다는 것은 정치적 체면이 구겨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당권에 도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버거운 목표인데다 호남 당권 주자 단일화 얘기마저 나오고 있어 상당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다선의원들이 지도부 도전을 포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지난 대선 패배 이후, 지역 민심은 지역 정치권에 과감한 정치적 도전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3선 이상 의원들의 경우, 과감한 도전을 통해 지역민의 정치적 갈증을 해소하지 못할 경우, 차기 총선에서 '퇴출' 압력에 직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지역 다선 의원들은 당권 도전에 나서는 이용섭 의원에 불편한 심경을 보이고 있다. 현실적으로 당권을 확보할 가능성도 낮은 상황에서 괜히 '편지풍파'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 의원이 차기 광주시장을 염두에 두고 당권 도전에 나서 광주 정치권의 대표 주자로 자리매김하려 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보이고 있다. 이에 당권 도전의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라면 차기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 불출마 선언 등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용섭 의원 측은 섭섭하다는 반응이다. 당권 도전 여부는 최종 확정되지 않았으며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논의를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자신이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광주·전남을 대표해 당권 도전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방식이나 패배주의에서 벗어나지 않고서는 광주·전남지역 정치권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로 예정된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회동에서 지도부 경선과 관련, 어떠한 결론이 도출된 것인지 주목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안철수 컴백 임박했나

캠프 본부장·실·팀장급 인사들 모임 잦아

4월 재·보선 정치세력화 신호탄 쏠까 촉각

미국에 체류 중인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의 귀국이 머지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안 전 교수 측 관계자는 14일 "최근 분위기로는 안 전 교수의 귀국을 전제해서 준비하는 과정"이라며 귀국이 임박했음을 암시했다.

안 전 교수가 지난해 12월 19일 미국으로 출국할 당시 주변에서는 한두 달 일정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출국 이후에는 새 정부 출범이나 민주당 재편 과정이 어느 정도 진행된 뒤인 '2월 말~3월 초' 귀국설이 유력하게 떠올랐다.

특히 최근 캠프 본부장 및 실·팀장급 인사들의 모임이 잦아진데다 모임에서의 논의 주제도 4월 재보궐 출마 여부 등 정치 세력화 방안 등이다.

이들은 내부 의견을 안 전 교수에게 전달하며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캠프 본부장 출신의 송호창 의원, 상황실장을 지낸 금태섭 변호사는 지난 1월 잇따라 미국을 방문해 안 전 교수를 만나고 돌아왔다. 이들은 안 전 교수가 정치 구상 중이며, 귀국 때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했다.

법률지원단장을 맡았던 강인철 변호사도 방미해 안 전 교수를 만나고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 체류한 지 두 달이 되어가는 안 전 교수는 정치 세력화 방안과 새로운 정치비전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는 사항은 당장 두 달 앞으로 다가온 4월 재보궐 선거에서 안 전 교수와 측근 인사들의 출마 여부다.

내부적으로는 안 전 교수가 4월 재보선에는 출마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상당수지만, 안 전 교수가 직접 본인의 뜻을 밝힌 적은 없다는 점에서 출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또 캠프에 몸을 담았던 인사 중 조광희·금태섭·정연순 변호사 등도 4월 재보선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1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주통합당 의석을 찾아 박지원 전 원내대표, 박기춘 원내대표, 변재일 정책위의장, 홍영표 의원, 윤관석 원내대변인과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조직개편안 본회의 처리 무산

여야 물밑조율 재개…2차 처리시한 이전 타결여부 주목

정부조직 개편안의 14일 본회의 처리는 무산됐지만 여야 간의 물밑 조율이 재개되면서 2차 처리 시한(18일) 이전 타결 여부가 주목된다.

특히, 새누리당과 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가 이날부터 비공식 접촉에 나설 예정으로 알려지면서 정부 조직 개편안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핵심 쟁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방송통신위원회 기능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등이 꼽히고 있다.

현재 민주당은 원안위 및 방통위의 독립성 보장과 함께 국가청렴위원회 및 공수처 설치, 중소기업청 격상, 금융정책·규제 분리, 통상교섭 기능 관련 '통상교섭처' 신설, 산학협력 기능의 교과부 존치 등을 요구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 "원래 오늘 (정부조직개편안을) 처리하기로 약속했는데 민주당이 약속을 지키는데 매우 소홀했다는 점에 대해서 유감스럽다"면서 "18일에는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직제표 미제출 비판과 관련, "직제표는 법안이 만들어지면 그에 따라 작성되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새 정부가 출범할 때 직제표를 사전에 내고 정부조직법안을 처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같은 방송에서 "(새누리당이) 오늘 내일이라도 우리가 요구하는 현안과 국민에게 필요한 것을 수용한다면 내일 모레라도 타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 수석부대표는 부처 국·과가 포함된 정부직제표 미제출, 새누리당의 원안 고수 입장 등을 비판하면서 민주당 요구사항 반영을 재차 촉구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이동흡 사퇴…박근혜 후임 지명 부담될 듯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지난 13일 자진사퇴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부담이 커졌다.

취임 직후 후임 헌재소장을 지명해야 하는 상황이 됐지만 도덕성에서 깨끗하고 참신한 후보를 찾아야 하는 일이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우선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가 이제 12일밖에 남지 않아 후임을 물색하고 국회 인사청문 과정을 거치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취임 직후에 후임 헌재소장을 지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민 눈높이'를 충족할 만한 인사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일반적이다. 또 헌재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어 사전 검증을 하는데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도 박 당선인으로서는 쉽지 않은 대목이다.

특히 박 당선인이 이 후보자 지명에 어느 정도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이 후보자의 낙마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있다.

이날 이 후보자가 자진사퇴를 발표하자 박 당선인 측에서 언급을 자제한 것도 이러한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운명철학

人間의 길흉화복이라는 것이 과연 선천적으로 타고나는것일까? 또는 운명적 점지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후천적 노력과 기회로 강호의 영웅호걸이 탄생되고, 21세기 현대문명아래서도 죽한끼 제대로 못먹고,신음하는 노후 인생과 빈명들은 정녕 노력을안해서였을까?

여기서 엄청난 사실을 발견할수 있다!
자신의 분수(운명)을 모르고, 분마처럼 날뛰면서 청춘과 일생을 허생 낭사한 결과는 어떠한가? 두번다시 돌아올 수 없는 인생의 흐름에서 참으로 선천과 운명적으로 부여받은 스스로의 복덕과 관운 재운 부부 자식 학운 건강등이 자신의 숙명관에 어떻게 배열되 있는지 참고점검 해보는 것이 지혜있는 삶의 방법입니다.

※단 맞지 않으면 무조건 무료
중국, 대만, 대한민국 자미두수 대가!

경천동지할 비술인(천문 자미두수)로 수십년을 요달한 경지에서 인생길을 통쾌하게 안내함, 역술과 풍수지리 참선의 길 기초부터 무료강의 무료
개인지도 자격제한 없음(무속인, 역술인 환영)

감정강의장소 전남 담양군 남면 지곡리 95-2
(광주댐 상류 소쇄원 주차장 아래 하천변)
철학연수원(진짜곰탕집)

TEL 061-383-7222 HP 010-4178-8830
강 사 柳無山居士

국/가/공/인
한문지도사자격
취득을 위한 연수생 모집

❶ 연수일정(2013년 제10기)
• 개강일시 : 2012. 3. 4(월) 기초주간 14:00 / 기초야간 19:00
• 개강장소 :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 모집기간 : 2013. 1. 21(월) ~ 2013. 2. 28(목)
• 수업기간 : 2012. 3. 4(월) ~ 2013. 6.17(금) (총 90시간)
• 수 강 료 : ₩360,000
● 모집인원 : 기초반 주간반: 30명 / 기초반 야간반: 30명
※ 기초반 수료자는 자동적으로 다음 학기에 2단계 심화과정으로 진급함
● 수업시간 : 매주 월요일, 금요일
- 주간반 14:00~17:00
- 야간반 18:00~21:00
● 수료 후 특전
• 기초단계 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발급 수료증 수여
• 1,2단계(기초, 심화) 수료시 한문지도사 자격증 2개 동시 취득 기회 부여
① (사)한국국공립대학 평생교육원협의회장 발급 한문지도사(민간자격)
② 국가공인 기관장 발급 한문지도사(국가공인자격)
•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 급수 취득 기회 부여
• 각 한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한문학원 개설 가능
• 각급학교 방과후학교 강사 추천

❷ 원서교부 및 접수처(토,일 공휴일 휴무)
• 전 화 (062)530-3873~3876
담당교수 H.P 010-2611-1171, 011-9712-1378
• 광주은행: 074-107-004114 (예금주: 전남대 평생교육원)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CHONNAM NATIONAL UNIVERSITY LIFELONG EDUCATION CENTER
http : //sle.jne.go.kr

투자 하실 분
▶물건 : 경매 진행물건 중 NPL과 특수물건
▶보장 : 등기/근저당 설정
▶자금 : 5천만원 이상
▶기간 : 1년정도
▶수익 : 투자 대비 고수익
(주)오천경매 H.010-3605-5000

배우실 분!
▶분야 : NPL과 특수물건
▶시간 : 주1회, 2시간 3개월 과정
▶수강료 : 개인, 1100만원 공동, 550만원 (임장비등 일체)
(주)오천경매 H.010-4667-9300

못 받은돈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공증문서 ■대여금
■법원판결문 ■운송료
■각종채권 ■구상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 채무자 전국 재산조사 가능
· 채무자 신용조사
· 법인재산조사, 신용조사
법원 재판중인 사건 확인
의뢰시 선수금없음
(회수금에 대한 후불제도)
필요에 따라 법비용은 채권자 부담
"타 신용정보사와 비교 탁월한 회수실적"
"전국 지점으로 전국 소재 파악"
"수시로 의뢰인에게 상황보고"
세일신용정보(주)
전문상담 010-8617-7899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1. 2층 38평, 사무실 전용
2. 현, 보1000만원에 월60만원 임대중
3. 현, 대출2,900만원 있음
4. 매매가, 9000만원
5. 문 의 : 010-3605-5000(주인직)

매매

신안동 제일오피스텔
1. 2층 48평, 사무실 전용
2. 현, 보1000만원에 월50만원 임대중
3. 현, 대출3,000만원 있음
4. 매매가, 9000만원
5. 문 의 : 010-3605-5000(주인직)